

중학교 1학년 음악에 적용된 Orff. Kodály. MMCP 수업안 연구

김 경 란

목 차

I. 서론	V. 결론 및 제언
II. 관계문헌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III. 연구의 방법 및 과정	부록
IV. 연구의 결과	영문 초록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필요성

음악 교육의 역사가 인류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면서 우리의 음악교육도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면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양적 발달에 비례하여 생긴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한다. 문제점의 핵심을 바르게 인식하여 왜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지 발생원인을 알아 보고 해결점을 모색하는데 우리 모두 인색함이 없어야 하겠다.

이재숙(1987)은 그의 논문에서 우리나라 음악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 했다.

첫째, 교육 과정상의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음악의 정신적인 실체는 있되, 그 실천의 장에서 필요한 교육적 방법론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교육적인 측면보다 연주활동에 지나친 비중을 둔다.

셋째,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해서 욕구와 동기유발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 우리 나라의 음악 수업은 교사의 자질, 시설, 수업방법 등에서 이와 관련 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음악이 비음악적 요소를 포함한 보건 위생, 사회제도, 정치적 전시효과 등의 도구로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이다.

다섯째, 음악이 다른 과목의 수업 영역에 통합되어 신원이 상실된 프로그램으로 변한 경우이다.

여섯째, 음악 교육이 교육 자체적인 면보다 대중 내지 사회 특수층의 인정을 받는 데에 그 목적을 두는 경우이다.

일곱째, 방송 음악 프로그램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여덟째,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 수단을 중요시하는 음악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이다.

아홉째, 해방 이후 40여 년 간의 음악 교육은 그 이전의 일제 강점하에서 이루어졌던 35년 간의 서양 음악 위주 교육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 그 결과 음악 문화에 있어서 자주적인 정신이 마비되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거의 병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물개성적 획일화는 음악 교육에 커다란 장애 요소이다.

열번째, 교과서의 내용 자체에서도 국악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목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음악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심각한 문제점이다. 말하자면 국악을 듣는대신, 나아가서 민족적인 세계의 음악으로 승화시킬 밑받침을 길러 준다든가 하는 등의 상황은 전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¹⁾

이밖에도 입시를 위한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과 악기(피아노, 오르간 등) 소리를 항상 듣고 가창을 하여 음정감이 거의 없는 점, 교육현장에 악기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지 못하여 여러 가지 소리를 접해 볼 기회가 없는 점, 어려서부터 듣고 적기, 보고 부르기의 경험이 적은 관계로 창작의 한계를 빨리 느끼는 점, 감상의 경우도 20C 현대 음악은 멀리한 채 옛부터 답습해 온 고전주의, 낭만주의 음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 실제 음악수업(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에 있어서도 커다란

1) 이재숙, (1987), "MMCP 이론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음악 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17.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 가운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에게 가장 절실히 느껴지는 점은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이에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관한 많은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하여 새로운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문제 즉 음악교육의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종래의 교수방법을 개선한 새로운 교수법을 제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적 성취도와 수업에 대한 흥미와 태도 그리고 반응과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새로이 작성한 교수법과 종래의 교수법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학생들의 호응을 받으며 음악의 이해증진에 효과적인가를 알아 보고 학생중심의 창의적 음악활동을 통한 음악적 신장과 이해를 위해 실험연구의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데 선두적인 연구가 되고자 한다.

3. 연구의 문제

음악개념시험에서 종래의 교수법을 가지고 수업을 한 통제집단과 새로운 교수법으로 수업을 한 실험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겠는가?

4. 연구의 제한점

- 1)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공립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다.
- 2) 같은 내용의 네 개의 제재곡을 가지고 통제집단은 종래의 교수방법으로, 실험집단은 Orff·Kodály·MMCP(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gram)의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총 8차시의 수업을 실시 하였다.
- 3) 한국 실정에 맞는 Orff지도안을 작성하였기에 Orff악기중에서 글로젠슈필·메탈로폰·자일로폰 등을 제외한,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리듬타악기와 가락악기만을 사용하였다.
- 4) 시험문항은 표준화된 것이 아니고 자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에 대해서만 검증하였다.

5. 용어의 정의

1) Orff접근법

말(speech)에서 시작된 리듬을 신체표현①을 통하여 익히고 5음음계②를 기초로 창작한 멜로디를 Orff악기③로 즉흥연주하며 오스티나토④나 보르동⑤을 만들어 즉흥반주하는 등의 종합적인 방법을 말한다.

- ① 신체표현 몸을 움직여서 리듬을 표현하는 것.
예) 무릎치기, 손뼉치기, 손가락튀기기 등
- ② 5음음계 도·레·미·솔·라로 구성된 음계.
- ③ Orff악기 리듬 타악기 <북·심벌즈·트라이앵글·방울·우드블럭·손북·팀파니>
건반 타악기 <실로폰(Soprano·Alto·Bass)·메탈로폰·글록젠슈필>
- ④ 오스티나토 같은 음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
- ⑤ 보르동(Bordun) 완전 5도의 음정을 동시에 계속 연주하는 것.

2) Kodály교수법

리듬 음절①(rhythm Syllables)과 손계명②을 이용한 가창중심의 교육 방법을 말한다.

- ① 리듬음절 음표의 길이를 음절로 읽는 법. <부록 1>참고
- ② 손계명 ... 손을 이용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정을 표현하는 것. <부록 2>참고

3) MMCP 지도법

수업을 통해 창작·연주·분석·감상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한 가지 음악개념*이 표현되는 즉흥연주곡을 소규모의 그룹이 만들어 연주해 보고 그 표현성과 효과에 대해 토의한 후 감상곡을 통해 개념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나 분석·토의해 보는 방법이다.

* 음악개념 ... 어느 음악에나 있는 공통요소로서 리듬·멜로디·셈여림·음색·형식 등이다.

4) 종래의 교수법

가창과 이론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입식의 수업방법.

5) 새로운 교수법

Orff·Kodály·MMCP의 교수법을 적용해 본 수업 방법

6) 음악 개념 시험문제

음악의 다섯개념(음색·셈여림·리듬·가락·형식)에 대해 각각 4문항씩 20문항의 문제를 만든 것.

7) 노래숨기 놀이(Hiding the song)

노래를 부르는 중에 선생님의 신호가 나면 학생들은 노래를 머리속으로만 부르고 입 밖으로 전혀 소리내지 않고 있다가 선생님의 두번 째 신호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8) 내청(inner hearing)

노래를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기억하는 것.

II. 관계문헌에 관한 고찰

본 장에서는 현재 구미 여러나라에서 현대적 음악교육 방법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Orff접근법·Kodály교수법·MMCP지도법에 관한 관계문헌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선행연구된 관계문헌들을 장르별 순서(1. 석사논문 2. 연구논문집 3. 정기간행물 4. 책)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석사논문

Carl Orff 연구로는 분석적 고찰의 방법으로 연구한 김순영(1976), 송상경(1986)과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선행된 고찰을 한 천신현(1988)이 있다.

Kodály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민속음악 연구를 중심으로 현실을 고려하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애숙(1983), 음악교육방법을 연구한 원희(1984), 20C 음악의 정의와 초반의 특징적 작곡기법을 설명한 이동호(1984),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법을 연구한 김현지(1985), 리듬학습에 관한 고찰을 위하여 실제적인 적용안을 보여준 김순희(1987), 교육이념과 활동, 음악교육방법과 특징 및 현위치에 대해 논한 배소환(1987), 활용방안 연구를 통한 적용과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박문령(1988)이 있다.

Orff와 Kodály를 비교한 연구에서 김은호(1980)와 추정희(1985)는 우리나라에서의 Orff와 Kodály 음악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MMCP의 연구에는 교육 방법과 이론적 근거, 그리고 음악교육의 목표와 원리에 대해 김리나(1982)가 소개하고 있으며, 김애경(1984)은 음악교육 이론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이재숙(1987)은 음악교육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음악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금희(1987)는 포괄적 음악교육의 이론 규명과 그 실제적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이혜자(1987)도 포괄적 음악과 학습지도를 위한 음악 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였고, 김희정(1989)도 포괄적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본 중학교 음악수업 실태를 조사 분석 하였다.

개념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에는 Dalcroze, Kodály, Orff의 리듬학습에 관한 이론적 배경의 설명과 리듬학습의 개념적 접근법을 논한 김혜진(1985)이 있고, 권덕원(1987)은 이론적인 근거를 밝혀 포괄적인 음악성을 갖추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김갑송(1989)은 개념수업모형을 정립하여 국민학교용의 화성개념 수업안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2. 연구 논문집

Orff의 학교교육용 작품에 나타난 기악합주의 표현형태에 대한 고찰을 이연희(1984)가 했다. Kodály에 관한 연구는 개론적인 서술에 그친 채완병(1976)과 Kodály의 리듬지도중 시계의 그림을 이용하여 리듬 연습을 연구한 윤선희(1986)가 있다.

신인숙(1984)은 Orff·Kodály·Dalcroze 음악이론을 중심으로 개요를 설명하였고, 김균영(1987)은 포괄적 음악학습 활동을 통한 창조적 표현능력 신장의 연구를 하기 위해 기초학력의 좌우를 비교하였다.

3. 정기간행물

김종환(1971)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Orff의 음악교육론을 소개하였고 박성태(1987)는 “Orff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을 재고찰한다”를, 임미경(1987)은 “Orff 접근법 I·II·III·IV”를 각각 음악교육에 싣고 있으며 기청(1989)의 “Carl Orff의 음악교육론에 의한 학습방안”도 있다.

Kodály에 관한 연구로서는 박성태(1988)의 “헝가리 음악교육에 있어서 코다이 시스템에 관한 것”과 임미경(1989)의 “코다이 음악교수법 I·II·III·IV” 그리고 기 청(1989)의 “코다이의 음악 교육에 의한 학습”이 있다.

오숙경(1973)은 Orff와 Kodály 음악교육이념을 최초로 비교 고찰한 점에 의의가 있다.

MMCP의 연구로는 “MMCP지도법 I·II”를 쓴 임미경(1989)이 있으며, 포괄적 음악교육은 이강숙(1978·1986)과 성진희(1986)가 개념·실재·효율적 지도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포괄적 음악교육과 MMCP의 나선형 학습 I”, “포괄적 음악교육에서의 개념학습 II·III”을 기청(1989)이 논하였다.

개념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가운데 민병호(1989)는 음악과 수업에 있어서의 개념적 접근방법을 논하고 있으며 김정순(1986)은 국민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개념적 접근법 적용의 실험연구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강숙(1986)도 “음악교육에 있어서 ‘개념지도’의 의미”에 대해 음악교육에 자세히 쓰고 있다.

4. 책

성경희(1988)는 그의 저서 음악과 교육론에서 Kodály·Orff의 음악교육철학과 이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포괄적 음악교육과 포괄적 음악성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개념적 접근법은 논리정연하게 이론적 설명을 하고 있으며, 국민학교와 중학교용 감상곡 두곡을 가지고 프로그램화 이론에 기초한 감상 학습안의 실제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5.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rff·Kodály·MMCP의 연구에는 석사논문 21편과 연구논문집 5편, 정기간행물 16편, 책 1편 등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거의 이론에 관한 것이었으며 새로운 교수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도안을 제시한 논문은 거의 찾아 보기가 힘들었다.

III. 연구의 방법 및 과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공립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다. 그 중 1학기 부터 6개월 동안 계속 가르치던 6학급은 Pilot test를 하였고 4학급(199명)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기간은 1990년 8월 27일 부터 1990년 10월 13일까지 였다.

2. 측정 도구

Pilot test를 위한 음악개념시험문제는 7월 20일부터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시험문항의 내용은 국민학교와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미리 있는 내용 중에서 개념별로 출제 하였다. 그리고 Pilot test는 2학급을 Split-half방법으로 실시 하였고 그 결과 신뢰도는 0.89를 얻었다.

3. 귀무 가설(Null Hypothesis)

본 연구의 제 1장에서 상기한 연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다음의 귀무가설을 작성 하였다.

— 귀무 가설 —

종래의 교수법을 사용한 통제집단에서 얻은 취득점수와 새로운 교수법을 사용한 실험집단사이에서 얻은 취득 점수와는 $P < .05$ 수준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4. 자료 처리

사전점사와 사후점사의 차이에서 얻어진 개인의 취득점수(gain score)를 t-test로 검증하고자 SPSS/PC+를 사용하였다.

5. 연구의 구성

연구의 방법으로 사전·사후점사 통제군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4학급중 2학급은 통제 집단으로 종래의 교수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2학급은 실험집단으로 새로운 교수법을 사용하였다. 종래의 교수법은 주로 가창을 중심으로 한 주입식의 교육방법을 말한다. 즉 학생들의 창의적인 음악활동 보다는 악곡을 위주로 이론수업을 하며 학생중심이 아닌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음악수업이 진행되는 형태이다. 반면 새로운 교수법은 구미 여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Orff·Kodály·MMCP 교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학생중심의 창의적이며 포괄적인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법을 말한다. 그 중 가창수업은 Orff와 Ko-

dály를 중심으로 적용하였고 감상수업은 MMCP를 중심으로 적용하였다. 사전검사는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 사후검사는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업기간은 5주를 계획하여 수업안을 작성하였으나 실제수업은 4주동안만 하였으며 일주일에 1학급당 45분씩 총 8차시의 수업을 하였다. 두 집단의 제재곡(표 Ⅲ)은 다음과 같다.

<표 Ⅲ>

기간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종류	가창곡	가창곡	가창곡	감상곡
제재곡	금강에 살으리랏다	오! 수재너	아리랑	“놀람”교향곡

6. 수업안의 예

새로운 수업안의 예로 Orff·Kodály·MMCP의 지도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수업안을 제시하였다.

금강에 살으리랏다.<1차시>

1. 리듬 카드를 이용하여 주요리듬을 리듬음절로 읽는다.

①

타 타 타 타

②

타아 타 타

③

티 티 티 티 타아

④

타이 티 타 타

- 지휘를 해 보면서 몇 박자인지를 알아본다.
- 교사의 선행 리듬에 따라 리듬 응답 놀이를 한다.

(우드블럭)
교사 4

학생 4

2. 신체 표현과 함께 리듬음절로 읽는다.

신체 표현과 함께 가사로 읽는다.(익숙해지면 빠르기를 변화시켜 본다.)

어깨 올리기
고개 숙이기
손뼉 치기

3. 신체표현과 함께 계명으로 읽는다.

제재곡을 손계명으로 읽은 후, 리듬에 맞춰 손계명으로 읽는다. 손계명과 함께 계명창으로 한다.(셈여림의 변화를 감지한다.) 가사창 한다.(신체표현)

금강에 살으리랴다.<2차시>

4. 리듬에 맞춰 앞서 한 신체표현을 악기로 연주한다.

템 버 린 (어깨 올리기)
 우 드 불 력 (고개 숙이기)
 캐스터 네츠 (손뼉 치기)

실로 폰 (보르동)

5. 학급을 다음과 같이 세 그룹

- ① “도”로 시작 “도”로 끝난다.
- ② “라”로 시작 “라”로 끝난다. 으로 나누어 각 그룹이 ♪ ♪ ♪ ♪ ♪ ♪
- ③ 전주(2마디)를 만든다 : 리듬 타악기 사용

와 같은 리듬을 사용하여 5음음계로 창작한다.(4/4박자, 6~12마디, 형식은 A·A·B)

- 시간
 - 창작 - 5분
 - 연습 - 10분
- 녹음하여 감상한 후 토의한다.

6. A A B 형식으로 연주해 본다.

(	A 노래 (신체표현)	또는	(	A 즉흥연주
	A ♫			A ♫
	B 즉흥 연주			B 노래 (신체표현)

오! 수재너<1차시>

1. 리듬카드를 이용해서 주요리듬을 리듬음절로 읽는다.

① 타 타

② 티 티 티 티

③ 티 티 텃 리

④ 당 킵 음

⑤ 타 텃 리 리
타이 리리

- 지휘를 해 보면서 몇 박자인지를 스스로 찾아본다.
- 교사의 선행 리듬에 따라 리듬 응답 놀이를 한다.

(우드블럭)

교사 2

학생 4

etc.

2. 신체표현과 함께 리듬음절로 읽는다.

신체표현과 함께 가사로 읽는다.(익숙해지면 빠르기를 변화시켜 본다.)

손 뺨 치 기

손가락 튕 기 기

책 상

어깨 치 기

“오!수 재 너 이”

3. “파”의 손계명을 익히기 위해 동요 “뚝갈아요”, “산토끼”를 이용한다.
- “시”의 손계명을 익히기 위해 동요 “머리·어깨·무릎·발”을 이용한다.

Unison part ① 신체표현과 함께 계명으로 읽는다.

- ② 손계명으로 읽은 후, 리듬에 맞춰 손계명으로 읽는다.
- ③ 손계명과 함께 계명창(셈여림을 변화시킨다)을 한다.
- ④ 가사창 한다.(신체 표현)

Soprano part ① 신체표현과 함께 계명으로 읽는다.

② 손계명으로 읽은 후, 리듬에 맞춰 손계명으로 읽는다.

③ 손계명과 함께 계명창(셈여림을 변화시킨다.)

④ 가사창 한다.(신체표현)

Alto part ① 신체표현과 함께 계명으로 읽는다.

② 손계명으로 읽은 후, 리듬에 맞춰 손계명으로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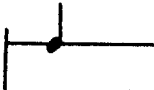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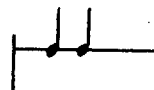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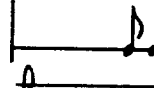
③ 손계명과 함께 계명창(셈여림을 변화시킨다) 한다.

④ 가사창 한다.(신체 표현)

·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교대로 연습해 본다. → 2부로 해본다.

오! 수재너<2차시>

4. 앞서 한 신체표현을 리듬에 맞춰 악기로 연주한다.

템 버 린 (우드블럭)		(손뼉 치기)	실로폰		(책 상 두들기기)
캐스터네츠		(손가락 뽐기기)	실로폰		(어깨 치기)
			실로폰		

5.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① 한 그룹은 4명씩 한 조를 만들어 ♩ ♩ ♩ 리듬을 악기(가락악기·리듬 타악기)를 이용해 기악 반주 한다.

② 다른 그룹은 ♩ ♩ ♩의 리듬을 이용하여 “오! 수재너”의 주제에 따른 창작을 한다.

· 시간 창작 - 5분
 연습 - 10분

· 녹음하여 감상한 후 토의한다.

6. A B A' 형식으로 연주해 본다.

A B 형식으로 연주해 본다.

- A 노래
- B 즉흥 연주
- A' 창작반주 + 노래

- A
 - a 노래
 - a' 노래 + 창작 반주
- B
 - b 즉흥연주
 - a' 노래 + 창작 반주

아리랑 <1차시>

1. 리듬카드로 6/8 · 9/8 박자의 차이점을 학생 스스로 감지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1)

(2)

(3)

(4)

2. 리듬카드를 이용해서 주요리듬을 리듬음절로 읽는다.

① 톼 톼 톼

② 루 음 톼

③ 톼 타 티 타 티

④ 톼 티 티 티 타 티

· 교사의 선행 리듬에 따라 리듬응답 놀이(리듬 Canon)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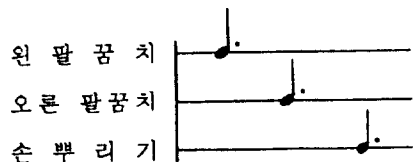
1 분 단

2 분 단

3 분 단

3. 신체표현과 함께 리듬음절로 읽는다.

신체표현과 함께 가사로 읽는다.



아리랑<2차시>

4. 신체표현과 함께 계명으로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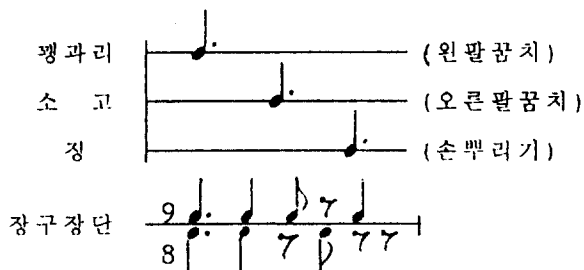
손계명으로 읽은 후, 리듬에 맞춰 손계명으로 읽는다.

손계명과 함께 계명창 한다.

가사창(신체표현과 함께) 한다.

- 노래 숨기(hiding the song)놀이를 하여 내청력(inner hearing)을 기른다.

5. 리듬에 맞춰 앞서 한 신체표현을 악기로 연주한다.



6. 5음을 가지고 실로폰으로 즉흥연주 한다.

- 실로폰 → 5음 즉흥연주

- 리코오더



- 장구 장단



- 녹음하여 감상한 후 연주해 본다.

7. A B 형식으로 연주해 본다.

- | | | |
|---|---|----------------------|
| A | [| a 노래 |
| | | a'노래 + 기악 (쟁가리·소고·징) |
| B | [| b 즉흥연주 |
| | | a'노래 + 기악 |

교향곡 “놀람” 제 2악장 <1차시>

1. 동기 유발

· 어떤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놀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지 다함께 생각해 본다.(상황 설명·유도)

2. 학급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미리 준비해 온 소리나는 물건(깡통·유리컵·강판·바가지·열쇠 꾸러미·쇠막대기·주전자·나무 막대기·필통 등)과 신체에서 낼 수 있는 소리 그리고 악기(우드 블럭·마라카스·멜로디온·리코더·실로폰·탬버린·트라이앵글·캐스터네츠·피아노·기타·하모니커 등)를 이용하여 놀람의 상황을 만들어 본다.

- 지휘자 : 1명
- 작품구성 : 5분
- 연습 : 10분
- 작품시간 : 15~20초
- 놀람의 순간 : 2번
- 녹음하여 감상한 후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 서로 토의 한다.

3. 하이든의 “놀람”주제를 들어보고 앞서 만든 놀람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

- 주제를 감상하면서 참여림의 대조를 알아 본다.

교향곡 “놀람” 제 2악장 <2차시>

4. 칠판의 악보(Mozart의 “아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 주제)를 각자 연주해 본다.

- 변주곡을 감상하면서 변화의 방법을 토의한다.
- “변주곡이란 무엇인가?”의 정답을 찾아본다.

5. 칠판의 악보(“놀람”의 주제)를 멜로디온이나 리코더를 이용하여 각자 연주해 본다.

- 제1~제4변주를 들으면서 각 변주에 맞는 그림카드의 번호를 노트한다.

1. 리듬	2. 조성	3. 박자	4. 멜로디
-------	-------	-------	--------

- 다시 감상하면서 변화의 방법을 알아본다.
- 놀람의 상황과 변주곡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 후 토의한다.

6.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감상하면서 다음의 활동을 한다.

- 1그룹 : 셈여림의 변화를 두 팔을 이용하여 표현한다.(작은 소리는 두 팔을 오므리고 큰 소리는 두팔을 벌린다.)
- 2그룹 : 변주곡의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IV. 연구의 결과

본 장에서는 총 8차시 동안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종래의 교수법과 새로운 교수법으로 수업한 후, t-검증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표 IV-1>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얻은 개인의 평균점수를 $M_1 \cdot M_2$ 로, 개인이 취득한 평균점수의 차이를 $\bar{x}$, 각 그룹의 인원수는 N, 그리고 두 집단의 t-검증값은 t로 나타내었다. 두 집단이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얻은 각각의 개인 취득점수를 t-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두 집단의 t-test 통계

	M_1	M_2	$\bar{x}$	N	t^*
실험 집단	12. 97	14. 42	1. 4141	99	.12
통제 집단	13. 63	15. 00	1. 3700	100	

*Tabel t = 1.97(.05)²⁾

2) 두 집단간의 점수 차이에 관한 t값이 1.97 이상이면 95%의 확률로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인정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사전검사에서 얻은 실험집단의 평균점수는 12.97이었고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는 13.63이었다. 사후검사에서 얻은 평균점수는 실험집단이 14.42였고 통제집단이 15.00이었다. 결국 두 집단이 얻은 개인평균 점수의 차는 실험집단이 더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t값의 숫자가 .12이므로 두 집단에서 얻은 개인별 점수의 차이에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종래의 교수법을 사용한 통제집단과 새로운 교수법을 사용한 실험집단 사이에서 얻은 개인의 취득점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될 수 없음을 검증하였다.

교수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총 8차시의 수업을 끝마친 후 실험집단에 속하는 두 학급 99명 학생들의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반응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실험집단의 반응

	긍정적 반응	빈도	부정적 반응	빈도
수업	재미 있었다.	60	재미 없었다.	1
손계명	도움이 되었다.	46	어려웠다.	21
			싫다.	8
			비슷해서 잘 모르겠다.	3
리듬움절	도움이 되었다.	45	국민학교에서 배운 것과 혼돈이 되었다.	16
	어른이 된것 같다.	1	재미 없었다.	3
신체표현	재미 있었다.	38	싫다.	13
창작	무척 좋았다.	19	어렵다.	21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14	싫다.	3
	자기 스스로 창작할 수 있음이 좋았다.	13		
즉흥연주	감상한 것이 좋았다.	11	그룹별로 하니 시끄러웠다.	2
악기	수업방법이 재미있었다.	6	리듬악기를 사용하니 국민학생이 된 것 같다.	1
새로운 방법	계속했으면 좋겠다.	6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좋았다.	2		
	새로운 방법이었다.	1		
기타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니 협동심이 생겼다.	3	발표의 기회가 한정되었다.	2
	작곡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위의 <표 IV-2> 에서 전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반응은 모두 266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모두 93이었다. 긍정적인 반응에서는 새로운 교수법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리듬음절과 손계명 그리고 창작하여 즉흥연주를 하는 것에 호응도가 높았다.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손계명과 창작이 어려웠다고 말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리듬음절 읽는 방법이 국민학교에서 사용하던 것과 혼돈이 된다는 대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신체표현이 싫다고 대답한 학생도 13명이나 되었다. 이상에서 연구자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손계명과 창작·리듬음절의 방법을 좀 더 실용적으로 개선한다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좋은 교수법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공립여자중학교 1학년 4학급을 선정하여 각각 2학급씩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45분씩 총 8차시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은 가창과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교수법을 사용하였고, 실험집단은 Orff·Kodály·MMCP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수법을 사용하였다.

음악개념시험문제로 사전·사후검사를 한 결과 두 집단간에 개인이 취득한 점수의 차는 실험집단($\bar{x}=1.41$)이 통제집단($\bar{x}=1.37$)보다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t=.12$ 이므로 $p<.05$ 의 수준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종래의 교수법을 사용한 통제집단에서 얻은 취득점수와 새로운 교수법을 사용한 실험집단사이에서 얻은 취득점수와는 $p<.05$ 수준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된다. 즉,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사이의 개인 취득 점수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의 총 8차시에 걸친 수업활동은 두 집단간에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통제집단의 가창수업은 교사를 중심으로 피아노에 맞춰 계명창과 가사창을 하고, 제재곡의 악곡에 관한 이론을 주입식으로 알아 보는 수업이었으나 실험집단의 가창수업은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느끼고, 스스로 곡을 만들어 즉흥연주를 해 보고 또 그것을 감상한 후 서로 토의해 보는 수업이었다. 감상수업에서도 통제집단은 학생 스스로의 활동이 거의 없고 작곡자와 악곡의 설명을 들은 후 감상을 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실험집단은 소리를 만들어 직접 체험해 보고, 신체를 움직여 보면서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바

꾸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새로운 교수방법에 대한 실험집단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포괄적이며 경험적인 음악활동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방법 개발에 힘써야 하겠다.

따라서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교육의 방법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 학기 이상의 충분한 실험기간을 이용해야 하겠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총 8차시의 실험기간이 너무 짧아 새로운 교수법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가 연구의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되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여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남·여 혼합반의 일반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3.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 대부분이 음정과 리듬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Kodály의 리듬음절과 손계명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4. 즉흥연주를 해 본 결과 학생들이 악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므로 음판을 자유자재로 조작하게 되어 있는 Orff의 악기처럼 연주법이 쉽고, 사용하기 편한 악기가 개발되어 좀 더 다양한 악기의 사용과 악기에 대한 폭 넓은 지식 습득이 있어야겠다.

5. 음악실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새로운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음악실은 방음장치 및 녹음시설, 감상시설이 갖추어진 전문화된 특별실이 되어야 하겠다.

6. 다양한 음악 교육의 교수법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직 교사들을 위해 방학 동안의 연수와 워크 샵 또는 강연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이 실행되어야 하겠다.

7. 아무리 훌륭한 교수법이라도 널리 활용이 안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수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 문헌

<논 문>

- 권덕원 (1987). 음악교육에 있어서 개념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근거,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송 (1989). 음악교육의 개념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 개념 수업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계명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리나 (1982). MMCP의 원리와 학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영 (1976). Carl Orff의 교육용 작품 Schulwerk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 (1984). MMCP 음악교육 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호 (1980). Carl Orff와 Zoltan Kodály 음악 지도법의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 (1984). Kodály Method에 관한 연구 :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1985). 리듬학습의 개념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1989). 포괄적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본 중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문령 (1988). Zoltán Kodály System과 활용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소환 (1987). Kodaly 음악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상경 (1986). Carl Orff의 <Schulwerk - Musik für kinder>에 관한 고찰,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 희 (1984). Kodály의 음악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호 (1984). Zoltán Kodály의 작곡기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숙 (1987). MMCP 이론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음악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자 (1987). 포괄적 음악과 학습지도를 위한 음악교육 실태 조사 연구—전북 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신현 (1988). 오르프의 음악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금희 (1987). 포괄적 음악교육의 이론 규명과 그 실제적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정희 (1985). C. Orff와 Z. Kodály의 음악교육방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Mikyung Rim. (1988). The Application of American Eclectic Teaching Techniques to Seventh Grade General Music in Korea. Arizona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정기 간행물>

- 기 청 (1989, 2). “칼 오르프의 음악교육론에 의한 학습방안.” 음악교육, 38, pp. 178-181
- (1989, 4). “포괄적 음악교육과 MMCP의 나선형 학습 (Ⅰ)~(Ⅲ).” 음악교육, 40, 43, 45 pp. 64-66
- (1989, 9). “코다이의 음악교육에 의한 학습.” 음악교육, 45, pp. 140-143.
- 김군영 (1987, 12). “포괄적 음악학습 활동을 통한 창조적 표현능력 신장.” 부산시 교육 연구원 연구논문집, 46, pp. 300-329.
- 김종환 (1971). “Karl Orff의 음악교육론.” 대구교육대학 교대춘추, 5, pp. 27-35.
- 민병호 (1987, 6). “음악과 수업의 개념적 접근방법.” 연구월보 183, p. 5.
- 박성태 (1987, 12). “칼 오르프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을 재고찰한다.” 음악교육, 24, pp. 136-139.

- (1988, 12). “헝가리 음악교육에 있어서 코다이 시스템에 관하여.” 음악교육, 36, pp. 72-76.
- 성진희 (1986, 1). “포괄적 음악성 개발 위한 효율적 지도 방법” 음악교육, 1, pp. 56-60.
- 신인숙 (1984, 2). “유아 음악교육 교과 과정의 시안 : Carl Orff, Kodály, Dalcroze의 음악이론을 중심으로.” 계명연구논총, 2, pp. 91-120.
- 윤선희 (1986, 1). “Kodály의 음악교육 연구.” 공주전문대학교 논문집, 12, pp. 313-336.
- 이강숙 (1987, 11). “포괄적 음악교육의 개념 : 현대 음악교육의 문제점.” 세계의 문학, 10, pp. 30-44.
- (1986, 2). “음악교육에 있어서 ‘개념지도’의 의미.” 음악교육, 2, pp. 22-23
- (1986, 2). “포괄적 음악교육의 실제.” 음악교육, 7, pp. 58-67.
- 이연희 (1984, 7). “Carl orff의 학교 교육용 작품(Musik fur Kinder)에 나타난 기악합주의 표현 형태.” 서울교대 논문집, 17, pp. 358-379.
- 임미경 (1989, 3). “코다이 음악교수법.” 음악교육, 39, pp. 46-47
- (1989, 4). “코다이 교수법 (Ⅱ).” 음악교육, 39, pp. 62-63.
- (1986, 5). “코다이 교수법 (Ⅲ).” 음악교육, 41, pp. 84-85.
- (1989, 6). “코다이 교수법 (Ⅳ).” 음악교육, 43, pp. 94-95.
- (1989, 7). “오르프 접근법 (Ⅰ).” 음악교육, 43, pp. 114-115.
- (1989, 8). “오르프 접근법 (Ⅱ).” 음악교육, 44, pp. 68-69.
- (1989, 9). “오르프 접근법 (Ⅲ).” 음악교육, 45, pp. 71-73.
- (1989, 10). “오르프 접근법 (Ⅳ).” 음악교육, 46, pp. 74-76.
- (1989, 11). “MMCP 지도법 Ⅰ” 음악교육, 47, pp. 160-161.
- (1989, 12). “MMCP 지도법 Ⅱ” 음악교육, 48, pp. 172-173.
- 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 12, pp. 231-249.

<책 (서적)>

- 성경희 (1988). 음악교육론. 서울 : 갑을 출판사.
- 이강숙 (1982). 음악의 방법. 서울 : 민음사.
- 임인재 (1987). 통계방법. 서울 : 박영사
- 정세문 (1987). 음악과 학습지도. - 이론과 실제 -, 서울 : 창지사.

ABSTRACT

The Application of Orff, Kodály and MMCP Approaches to Seventh Grade General Music

KIM, KYUNG RAN

Nowadays Korea needs to develop more effective and progressive music teaching techniques than 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new teaching methods such as Orff, Kodály and MMCP to seventh grade general music.

Four classes of first grade were selected from a public girl's middle school in Kuri, Kyung-gi province. Two classes were designated the experimental groups and the other two classes were the control groups. Eight times of music lesson were conducted and each lesson had 45 minutes.

The control group taught by traditional teaching techniques emphasized singing with piano accompaniment, music reading, listening, and learning music theory from the song material or listening example. The experimental group taught mostly by new teaching techniques, Orff, Kodály and MMCP approach, employed rhythm syllables and hand signs, body movement, instrumental playing, experimenting.

The measurement used for both pre- and post-tests was the researcher-made music concept test. The gain score was tested by the independent means t test.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the difference of the gain scor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5 level ($t=.12$).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preparing seventh graders to achieve music concepts taught by whether the new teaching techniques or the traditional teaching techniques. However, students' reactions to the new teaching techniques were highly positive.